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9월 4일(금)

...(음력 7월 17일)...

Пятница

4 сентября 2020г.

№ 35 (11690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9월3일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기념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군사 열병식을 비롯해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참전용사와 주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고, 수십 개의 나라와 수백만의 가정에 비통함과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놀라운 영웅들의 활약 덕분에 죽음의 무기들은 멈추었고, 적은 파멸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마지막 전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비에트군의 군사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세계는 수년간 항쟁의 종결을 알렸고 우리나라는 한때 잃었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할린주와 현재 주의 국경 형성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해방을 위해 2천여 명 이상의 장병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기념의 해에 9월3일 제2차세계대전 종전일을 러시아의 군사적 영광의 날이 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이 기념일을 전 국가들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역사적 정의와 평화의 보존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사할린주의 발전과 청년들에게 애국교육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내일을 전망하며 새로운 성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고, 우리 조국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성취와 만사 형통을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열병식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거행

9월3일(목) 오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남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기념하는 군 열병식이 열렸다.

(3면에 계속)

푸틴 대통령, 사임하는 아베 총리와 통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전화 통화로 양국 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협상 의사를 확인했다고 일본의 교토 통신이 전했다. 한편 크렘린궁 홍보실은 양국 정치인이 통화로 나눈 대화에 대한 소식으로 러시아와 일본 간 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안보 및 양국 국민의 이익에 있어서 우호적 관계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 언론사가 전했다.

러시아 크렘린 측에서 대담은 아베 총리의 사임 결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건강 상태의 악화로 8월28일 사임 결정을 한 가운데 질환은 궤양성 대장염의 만성질환이라고 밝혀졌다. 아베 총리는 퇴임 당일 자신의 총리 임기 기간에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떠난다."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와 도쿄는 20세기 중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평화협정의 마무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언제나 걸림돌은 쿠릴의 소열도와 쉬코탄, 쿠나시르, 이투루프 쿠릴열도들의 영유권 문제이다. 1945년에 이 섬들은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일본 측은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2018년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956년 10월 19일 소련-일본 선언에 근거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신

사할린주에 관광개발 계획 의뢰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사할린주, 캄차트카 변경, 연해주 정부 및 부처 장관들에게 극동연방지구에서 지역 개발의 종합적 관광계획 조성을 위한 연방 지역 간 관광 설계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지시안에는 '러시아 관광청,극동개발부, 경제부는 연해주와 캄차트카 변경 및 사할린 지역 고위 인사들과 공동으로 극동연방지구에서 지역 개발의 종합적 관광계획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관광 매력이 있는 연방 중심 핵심지역에서 지역적 및 공간적 계획의 연방 지역 간 관광 설계를 제작하도록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도시 변경 아이디어' 전 러시아 경연에서 사할린 학생들이 3위 차지

'2020 도시 변경 아이디어' 전 러시아 경연 결과 사할린 학생들이 3위를 차지했다.

경연 통신단계에서 9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85건이 실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자들 가운데 우수 3 순위에 오른 것은 '책들이 다가오다' 기획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 3 김나지아의 '판토리움' 아동 테크노파크의 학생들이 순위에 올랐다.

'책들이 다가오다'기획은 학교 정보센터의 인테리어 디자인 기획으로 이에 케이케르 스테판, 코츠네와 알리나, 마르쿠쉬나 소피아가 작업했다고 '판토리움'측이 전했다.

사할린, 연어 약 3만 2천 톤 어획

올해 8월 31일 기준 사할린 지역 수산업체들은 총 허용 어획량의 35.883%인 3만1981.452톤의 태평양 연어를 어획했다. 주 수산청 관리자료에 따르면 예상대로 성어기 초기부터 송어가 대부분 많이 잡힌 가운데 어획량은 2만7천688톤이 넘었다.

연어 어획량은 3077톤에 달했고 흥연어(네르카)는 810.33톤, 은연어(키주츠)는 426.45톤에 달했다. 송어산업은 전통적으로, 예상대로 쿠릴지역의 어민들이 선두를 차지하여 이들의 송어 어획량은 1만1천170톤에 달했다.

사할린에서 '물고기 섬' 축제 개최

제6회 미식 축제 '물고기 섬' 개막식이 9월 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축제는 오전 11시 돔토르고블리 백화점 옆 박람회 행사장(미라 거리 106)에서 시작된다. 이 행사장에서 수산물 판매, 지역 생산 물품 박람회, 푸드코트(음식점), 아동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펼쳐지고 아동그림 전시회, 활동교실, 흥미로운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어 전문 요리사〉바비큐그릴의 발트해 요리는 가장 볼 만한 행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의 일환으로 〈우수 청어(염장 숙성)〉요리 경연 참가자들에게 투표하여 우수 요리를 선정한다.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팬데믹이 아니라도 교육자에게는 각 학기가 쉽지 않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2중학교 이성철 교장과와의 인터뷰

9월 1일 , 지식의 날 러시아 모 든 학교들에서 개학 행사들이 진행 된 가운데 공식적으로 새 학년이 시 작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 가운데 학교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본사 배순신 기자가 유즈 노사할린스크 제22중학교 이성철(블라지슬라브 니콜라예위츠 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선 개학일을 축하드립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 네,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 개 학 행사를 2006년에 유즈노사할린스 크 제16호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했 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긴장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 기쁘고 기분이 좋아 요. 교직에 13년을 바쳐왔고, 또 13 년간 집행기관들에서 일하다 2주 전 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학교 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 대 여건 속에서 개학을 했는데 학 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첫째로 모든 학교들은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의 요구에 따 라 우리는 우선 감염자를 발견하기 위 해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 교사,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해야 하고 학부 모를 비롯해 방문객의 입장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의료실(보건실)을 설치해 학생들의 건강검진 을 담당할 의료진을 배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학급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학생들이 10-15분 간격을 두고 등교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반이 주로 한 교실에서 모든 수업을 진 행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 기구가 필 요한 수업을 빼고요. 체육시간은 체 육관에서 하고, 체험이 필요한 물리 학과 화학 수업시간 경우에는 물리, 또는 화학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합 니다. 또 학교 식당에서 여러 학급 의 아침식사, 점심 식사 시간도 달 라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학교 시 여러 개의 출입문(우리 학교 같은 경우 4곳의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시키는 데 있습니 다. 원칙적으로 이를 수행하기가 쉽 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습관을 갖추어야 함께 이 시기 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렵 지만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 을 받을 경우에는 환자가 있는 학급 학생만 자가격리를 하고, 음성 소견 이 나올 때 다시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이 팬데 믹은 다른 형태의 수업방식을 진화

시켰다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부 과목은 원 격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 히 상급반 고교생들의 경우 이런 수 업이 많아질 겁니다. 물론 주제와 과 목에 따라 정해야 하지요. 올해 졸업 생(11학년)들이 전 프로그램에 따라 공부하는 마지막 학급입니다. 국가 수능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룹별로 나누어 원격수업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0학년생들은 이미 새 교육프로그램을 따라 공부하는데 이들은 올해 프로젝트 활동이 굉장 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격수 업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교과 내 용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지 역 또는 시가 제공하는 교과 내용을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가 역사 선생으로서 하는 말인데, 우 리 도시에는 아주 좋은 역사공원 <러 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이 있잖아 요. 바로 거기에 가서 필요한 시대에 관한 테마로 4-5시간 역사 투어를 하 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지요. 다음 날 에는 물리학 수업을 대학 실험실에 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에 관한 시스템 연구를 파 악하는 중입니다. 모든 것을 되도록 완전하게 기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 모들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 는 걸 잘 이해해야 하고 아이들도 이 런 디지털 세상에서 사는 법도 배워 야 하는 것이죠.

- 현재 제22학교 총 학생 수 는 어떤지요?

- 약 1150여 명입니다. 아직 정 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9학년을 마 치고 전문학교에 진학하려다가 다 시 모교로 돌아오는 학생이 있거든 요. 교육법에 따라 우리가 이 학생들 을 꼭 받아야 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중급 5학년부터 11학년까지 공부하 고 있는데 보통 5학년은 6반인데 올 해는 희망 학생이 많아 추가로 또 한 반을 구성했습니다. 10학년 같은 경 우 3반인데 기준으로는 한 반에 학 생 32명, 실제로는 35명 정도입니다. 학생 대다수는 등교하고 직접 수업 에 참가하는데 자녀에게 원격교육(통신, 또는 가정교육)을 선택한 학부 모도 있습니다. 특히 휴업 중 원격수 업을 한 후에 이것을 선택하는 가정 들이 좀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형태 의 수업이 더 맞는 것 같다고 하는 사 람들이지요.

- 교사는 부족하지 않나요?

- 교사진은 약 80명인데 현재 러 시아어 교사, 수학 교사와 화학 교사 가 부족합니다.



- 교육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 현재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 <교육>국가기획에 따라 러시 아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략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러시아가 앞으로 일반교육 의 질적인 면에서 세계 10 대 국가로 진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현재는 교육시스템에서 학생 개 인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 니다. 학생의 능력, 실력을 고려해 교 육을 하고 이와 관련 단계별 시스템 의 평가가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학 생 개인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현재 많은 조건과 교육형 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이 아직 전 기준으로 공부하지만 10 학년생들은 이미 일부 과목을 선택 하고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 졸업생들은 이런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교육 외에는 현재 적 합성에 따른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 사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모 저 모

6만 명의 연금수급자들 '사할린 장수' 기획에 참여

'사할린 장수'기획에 6만 명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이 참여 한다. 고령층의 활동적인 삶의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은 '데모그래피아(주민통계학)' 국민 기획의 일환으로 벌써 2년째 사할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55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 누구나 '사할린 장수' 기획에 참 여할 수 있다. 기획 참가자들에게는 '사할린 주민 복지카드'를 지급하는데 이 카드로 문화 및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련의 약국을 비롯한 식품 및 상품 상점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획의 참가자들에게는 콘서트, 전시회, 견학 등 여러 문화행사 방문이 무료로 제공되며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고 령의 주민들은 스포츠 및 체육시설,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 다.

복지카드 소유자는 '사할린 장수' 행사가 열리는 어느 시 설이든 월20회 방문할 권한이 주어지며 이 카드는 사할린 전 지역 사회적 서비스센터 분과에서 발급한다고 주 정부 홍보 실이 전했다.

60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участвуют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Более 60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участвуют в проекте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Со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на правленная н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и продолжитель ности активной жизни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еа лизуе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второй год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Сахалинскому долголетию" мо 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в возрасте 55 лет и старше.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получают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 она дает право бесплатно посе щать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а также пользо ваться скидками до 10 процентов в ряде продуктовы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магазинов и аптек.

Участникам проекта предлагае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 сещать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экскурсии и другие куль 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ж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в спортивных и тренажерных залах, в бассейне. Владелец соци альной карты имеет право 20 раз в месяц побывать в каком-либо учреждении, где проводятся меро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Выдача социальных карт проводится во всех райо нах области в отделениях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го обслу жива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СО.

<남쪽 거리축제>가 도심에서 열려

체호브 센터와 정부청사 사이에 화가, 음악가, 익스트림스 포츠 전문가, 무용가, 배우, 운동선수, 응용예술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총 20개의 테마 행사장이 조성되었다.

축제의 가장 훌륭한 행사장은 '아트존'이었는데 여기서 사 할린과 러시아 타지역의 화가들이 자신들의 솜씨를 발휘했 다. 이들 중 한 명은 모스크바 거리예술가인 미샤 모스트이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유명하며 몇몇 작품은 트레차콥 스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거대한 정육면체에 사할 린 지역의 상징인 대게, 초목, 사할린의 모습을 표현했다. 코무 니스치체스키 거리에 조성된 행사 구역에 있는 익스트림 행사 장에는 60명 이상의 익스트림스포츠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 데 스케이트보드와 스쿠터 선수 및 자전거 애호가들이 묘기 를 펼쳤다. 가장 어린 선수는 4세였고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 해 우스리스크에서 몇몇 청년들이 왔다. 전문가들은 참가자들 의 묘기를 평가를 했다.

축제 방문자들은 강연을 비롯해 아동 놀이공간, 연극과 음 악 공연, 영화 관람, 거리 댄스 경연, 로보트와 드론 조정에 대 한 활동교실을 찾아 참여했으며,

단체 요가수업은 관람 후에 스트레스 해소 수치를 올려 주었다.

푸드코트 구역에서 야시장 오두막들의 식당은 통일된 스 타일로 식탁 대신 실제 나무 항아리를 사용한 점이 특별했다. 거리예술축제는 대승전 75주년 기념 <2020 오스트로와> 전 러시아 애국대회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Второй фестиваль «Южный стрит фест» прошел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жду Чехов-центром и домом пра вительства собрались художники, музыканты, экстре-

малы, танцоры, актеры, спортсмен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сего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20 темат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Самой красочной площадкой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Арт-зона". На ней свои умения показали лучшие худ оожники,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а, но и России. Один из них —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осковского стрит-арта Миша Most. Его работы известны во всем мире, некото 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коллекции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На огромном кубе художник изобразил символы островно го региона — краба, растительность и силуэт Сахали на.

Более 60 участников собрала экстрим-площадка, расположенная на перекрытом участке дороги Ком 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проспекта. Здесь исполнили трюки скейтеры, самокатеры и любители BMX. Самым юным спортсменам — всего 4 года. Некоторые ребята, что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состязаниям, прилетели из Уссурийс ка. Качество выступлений оцен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 ные эксперты.

Также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посетили лекции, дет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театральные и музыкальные высту пления, киносеанс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уличным тан ца,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сборке роботов и беспилот ников. Уменьшить уровень адреналина в крови после увиденного помогли групповые занятия йог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зоны фуд-корта стал единый стиль — кухни в ярмарочных домиках, вместо столиков ис пользуются оригинальные бочки.

Праздник уличных искусств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 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слета "ОстроVa 2020", который посвящен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사할린주에 상반기 동안 2645명 출생

사할린주에 1~6월간 2645명 출생, 2945명이 사망한 사 실이 주민등록소에 등록됐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300명으로 2019년 유사시기에는 398 명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구역들에 서는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더 많았다.

주내 상반기 혼인관계에서는 혼인 1291건, 이혼 962건이 등록되었고 2019년 유사시기에는 혼인 1423건, 이혼 1384건 이 등록되었다고 사할린 통계국이 전했다.

(8면에 계속)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열병식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거행

(1면의 계속)

주 중심 거리에는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객석에 모신 가운데 오케스트라의 음악 연주와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브 수비대 부대장이 기관총부대의 행진을 지휘했다. 미하일로브 대령은 미사일부대 및 68포병부대의 총장이다. 육군 68군단 참모장이자 러시아 연방 영웅인 블라디미르 벨랴스키가 기념사를 했다.

"1945년 8월에 소련군은 일본군과 전쟁을 시작했다. 대조국전쟁에 얻은 경험으로 미군이 해내지 못한 것을 참전 25일 만에 해냈다. 백만의 일본군을 격퇴하고 제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끝냈다. 남사할린 상륙과 쿠릴열도 진입 작전은 장교들과 장군들의 영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고 우리 군 병사들은 용맹과 끈기함과 영웅심의 표준이 되었다. 전투 결과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56개 섬들이 조국으로 돌아왔다."

고무적인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은 함성 "우라!"를 세 번 외쳤다. 이후 애국가 봉창 후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가 처음으로 9월3일을 러시아 군사적 영광의 날로 기념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 전투가 이 땅에서 벌어졌고 소련군의 영웅심과 용맹 덕에 남사할린과 쿠릴열도가 해방되었다." 라며 축사를 전했다.

축사 후 군인들이 '카츄샤'노래를 부른 후 유즈노사할린스크 수비대 일부가 거리를 따라 행진하고 이어 다른 병사들과 생도들이 <영예(슬라와) 광장까지 행진했다.

열병식은 군사 기술 및 전쟁시절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즉흥 무대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참전 용사들과 정부 관계자, 외교관, 사회활동가, 시민 등이 성화에 한화했다. 여기에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도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세계 종전 기념행사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여러 곳에서 펼쳐졌다. 특히 많은 행사가 가가린 시 휴식공원에서 열렸다. 방문객들은 전쟁시절의 무기 전시도 관람과 그 시대 군복을 입어보며 사진 촬영도 하고 군악단의 공연 등을 보고, 전쟁 주제의 영화도 관람했다. 저녁 8시 30분에는 승리광장에서 유명한

알렉산드르의 노래와 댄스 앙상블이 대규모 공연을 펼쳤다.

(취재: 이에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7초등학교에서 개학일



지난 9월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학교들에서 학생 27000여 명이 수업을 시작했다. 그중 3200명은 처음 학교에 입학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7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학교를 찾은 어린 학생들.

(이에식 촬영)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야구 공

야구글러브 두 개를 차에 가지고 다니지만 함께 놀 사람이 없다. 주위에는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캐치볼 하자고 조르기가 미안하다. 사회인 클럽 야구를 하자니 일 년에 절반은 작업 때문에 집을 떠나 있는 터라 단체 운동의 흐름을 켤 까봐 그러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야구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운이 좋으면 농구장에 갔다가도 어깨가 빠르할 정도로 캐치볼을 할 수 있다.

시골에 홀로 사는 그 분을 만난 건 팔 년 전이었다. 동화책의 그림을 부탁하러 만났다가 가끔 말없이 함께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손님이 오면 연락이 와서 밤늦게 술과 안주를 들고 신나게 달려가기도 했다.

불현듯 암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도 그 분은 평소처럼 답답했다. 원래 서로 말이 없던 사이지만 문병 때만은 어떻게든 침묵을 깨고 싶었다. "야구 좋아하세요?"

무심코 물은 한 마디에 깊은 강 같던 그 분의 농동자가 반짝 피어 올랐다.

가까운 초등학교를 찾아가 야구공을 주고받았다. 그 분의 공은 빨랐고 크게 휘었다. 놀라고 신나서 공을 주고받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직 수업이 안 끝났다고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분도 가슴이 아파서 캐치볼은 짧게 끝났다.

서로 공이 괜찮다며 감탄을 했다. 나는 쓰던 야구공 하나를 선물로 드렸다. 빨리 나서서, 아는 작가들을 모아 야구 시합을 한 번 해보기로 했다.

여름에 해외취재를 다녀오자 그 분의 부고가 전해졌다. 떠나기 전에 삼계탕을 함께 먹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다. 결국 작가들의 야구시합은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해가 질 때면 커다란 미루나무 아래 낮게 웅크리고 있던 시골집이 생각난다. 어둠이 고인 뿔마루에서 빨갛게 피어나던 담뱃불과 마당에 낮게 깔리던 연기, 연기를 잡으려 강충대던 누렁이도 이제는 없다. 세상에는 그렇게 소리없이 사라지는 풍경들이 있다.

야구 좋아하시냐고 조금 더 일찍 물어볼 걸 그랬다. 운동장에서 혼자 하늘에 공을 던지고 있을 때 갑자기 눈에 익은 야구공이 날아온다면 좋겠다. 그 공을 천국까지 되던지고 싶다.

광주에서 김남중

재외동포재단 '제9기 OKFriends 봉사단' 발대식 하이브리드식으로 개최

재 외

동 포 재 단

(이 사 장

한우성)은

28일 온·

오프라인

을 결합한

하이브리

드 방식으

로 '제9기

OKFriends

봉사단' 발

대식을 개

최했다.

OKFriends 봉사단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재외동포와 내국민의 상호

교류 역할을 목표로 매년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대학생 봉사단이며,

제9기까지 누계 508명의 단원이 활동에 참가했다.

동포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발대식 계획을 변경, 한우성 이사장 및 대표 봉사단원 5명이 재외동

포재단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55명 단

원은 온라인 화상 회의로 참여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활동은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당부하고, "OKFriends 봉사단으로 맺어진 소중한 네트워크와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

민국과 재외동포사회를 잇는 든든한 다리로 성장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격려했다.

※ 사진 설명 : 코로나 의료진을 향한 응원 "덕분의 챌린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제9기 OKFriends 봉사단 대표 단원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едаль за бой, медаль за труд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посвящённых сохранению памяти 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ах, 75-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и участию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этих глав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издан Московским Дом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нига подготовле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м объединением корейцев (ООК).

Хотя депортированных в 1937 г. из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негласно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отправлять на фронт, они всё ж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Выявлены более 400 корейцев — фронтовиков (орденоносцев), которые воев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на всех фронтах. Один из них, командир батальона 605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гвардии капитан Александр Павлович Мин, был удостоен звания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ногие награждены орденами и медалями. А трое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Парада Победы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 Москве 24 июля 1945 года.

Были корейцы, участвовавшие и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Основную же трудоспособную часть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билизовывали на «трудовой фронт» для работы на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шахтах, рудниках, лесозаготовках. В сборнике опубликованы материалы о самых знаковых персоналиях 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 орденосцах фронта и тыла.

Об этом, а также об исторически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аспек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рассказали участники онлайн-конференции в Московском Дом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А РУСКОР

РК — почётный гость Москов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нижной ярмарки

РК стала почётным гостем XXXIII Московск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нижной ярмарки 2020 год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о 2 по 6 сентября в Централь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Манеж». Это крупнейшее подо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оно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онлайн- и офлайн-форматах. РК стала почётным гостем ярмарки по случаю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в онлайн.

Подготовлена широкая программа-экскурс по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книгоиздан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Future-ing». В форме видеоматериалов подготовлены лекции и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гуманитарные, социальные и другие темы.

Преподаватели ряд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узов расскажут о прошлом и будущем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РК и России, о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искусств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ставить ряд произведе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ставки для юных посетителей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усская школа за рубежом: инструмент "Мягкой силы"?

Российскую школу принято критиковать за бесконечные реформы и пресловутое ЕГЭ, но она даёт весьма качественное системное класс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оставаясь наследницей той самой п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из которой когда-то выросли её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и — школ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СССР. Это делает её мощ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мягкой силы» за рубежом. Однако, чтобы эта «мягкая сила» работала, не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 оказывать финансовую и лиценз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частным русским школам за рубежом.

Сразу скажу: решение смен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тактику (англоязычная школа — университет) и перейти в школу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ыло для нашей семьи вынужденным. Первый наш ребенок благополучно проследовал путём англоязыч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Австралии, а вот со вторым произошла заминка. Мы переехали в Корею, и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ый австралийский детский сад сменился американским садиком, а потом и американской школой в Сеуле — по местным меркам, хорошей, третьей по дороговизне в стране.

Американская школа в Корее

Из простодушного мира эгалитарной Австралии, с её всеобщими резиновыми шлепанцами, наша пятилетняя девочка вдруг попала в мир мажоров из числа потомков корейских недоолигархов — это основной контингент дорогих англоязыч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в Корее. Перед нами раскрылись прелести эт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слоя во всей их поганой наготы.

Детские распальцовки на темы «моя мама весит 48 кг, а твоя мама 53, и поэтому лузер», «моя мама шопится в Париже, а твоя мама, как лох, работает прокурором области», «я не сяду с ней за одну парту, она кроссовки New Balance — отстой! — носит», «хорошо учатся лохи, а меня выдадут замуж за богатого». Откровенный расизм по отношению ко всем без исключения некорейским одноклассникам (нас ещё относительно спасала европейская внешность, самый ад устраивался индийцам и африканцам). Зашкаливающая наглост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учителям и родителям, швыряние рюкзаков в лицо личным шофёрам, безропотно таскающим эти рюкзаки за юными господами. Заискивающая беспомощность всех этих бедных, запуганных учительниц мексиканского или канад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еред богатыми сопляками, от которых зависела их работа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американцев Корея не является желанным местом, редкие из них задерживались в школе).

Жизненные цели контингента вполне прозрачны — потусоваться в школьные годы среди своих, потом поступить в какой-нибудь дизайнерский колледж, выйти замуж за своего и уехать в Калифорнию.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ы впол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этим задачам. Учительницы писали с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ошибками и утверждали, что у женщин рёбер больше, чем у мужчин, потому что так написано в Библии. На стендах с информацией о жизни школы не было ни одного фото учащегося ребенка — все они плавали, танцевали и обедали на пленэре.

Общение с родителями из других американских школ в Корею показало, что всё вышеуказанное не является част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нашей школы. Это системная проблема с печальными корреляциями: в школах более дешёв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ещё хуже, в школах более дорогих — дети ещё наглее.

Школа при посольстве РФ

После очередн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с этим миром-антиподом у нас с мужем вдруг синхронно родилась мысль: «А может быть, отдать её в русскую школу? Хуже уж точно не будет». К счастью, дочь, родившаяся и выросшая в Австралии, русский язык знала хорошо. К тому же в Корею она посещала занятия на дому у русской учительницы, которая преподавала программу российской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небольшой группе детишек. Нас удивляло, что дочь, обучаясь в школе самого разгильдяйского образц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полняла все домашние задания этой группы, без малейшего нажима с нашей стороны, выписывая старомодные палочки и заучивая стихи. Предложение перейти в русскую школу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она встретила с нескрываемой радостью.

Оказалось, что не мы одни такие умные. Многи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годами стояли в листе ожидания в посольскую школу. Но нам повезло — в третьем классе место оказалось, и я отправилась по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Когда я подходила в посольской школе, из нее выходили две незнакомые русские девочки лет двенадцати: милые личики, аккуратно причёсанные головки. «Здравствуйте», — сказали они мне и пошли дальше. Стыдно признаться, но у меня на глазах выступили слезы. За годы пребывания моего ребёнка в 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среде я уже привыкла, что дети ходят лохматыми, в мятой униформе и не здороваются вообще, даже если накануне были в гостях у вас дома. И вдруг 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не мы



с мужем — остальные люди, не врубающиеся в современные реалии: нормальные дети существуют и даже говорят на нашем родном языке.

А потом началась учёба. И мы увидели, как расцветает наша дочка, — среди нормальных людей и нормальных челове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Где рядом учатся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болгары, казахи, узбеки, белорусы, и никому не приходит в голову травить человека за другой цвет кожи. Где однокласснице-южнокорейке, плохо владеющей русским, принято помогать, и это происходит совершенно естественно, без завываний 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е»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толерантности». Где есть, как в любом обществе, разные отношения детей, с кем-то они ближе, с кем-то прохладней, бывают личные ссоры и недовольства, но нет и намека на групповщину и травлю.

Где можно спокойно подъезжать к воротам на старенькой машине, не рискуя поставить своего ребёнка в неловкое положение, и с тобой будут также приветливо здороваться идущие в школу дети.

— Тебе не нужны новые кроссовки? — спрашивала я, приученная покупать новую брендовую обувь каждые два-три месяца (униформа не позволяла детям в американской школе выпендриваться другим способом, и я — увя — поддавалась общему давлению).

— Да зачем, мне этих достаточно. У нас здесь на это внимания не обращают.

Зато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оказалось, на другое — кто как учится. Учиться в школе принято хорошо, и в этом, конечно, заслуга педагогов и общей деловой, рабочей атмосферы школы, куда ходят не тусить, а трудиться.

Среди учителей посольской школы нет ни приверженцев каких-то особо продвинутых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методик, ни искрящихся оригинальностью персоналий, которых в изобилии представлял когда-то советский кинематограф. Работают в школе хорошие специалисты, чётко знающие своё дело и добросовестно его выполняющие.

Кто-то ведёт себя с детьми помягче, кто-то строже, кто-то нравится больше, кто-то чуть меньше, но все вместе они работают как отлично отлаженный механизм. Окончание командировки одного хорошего учителя означает, что на смену ему придёт другой, ничуть не хуже.

Нашей дочери, подставшей от вечных фейерверков американской школы (то кувыркаемся на полу, то поём в парке на скамейке, то свободная дискуссия, то неделя спорта — что угодно, лишь бы не учиться), спокойная плановость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усской школе подошла как нельзя лучше. А мы не переставали удивляться тому объёму и систематичности знаний, которые девочка усваивает в процессе учёбы, сколько уже знает по математике, биологии, истории. Наша старшая дочь, бывшая круглой отличницей в хорошей австралийской школе, в школьные годы не могла и мечтать о таком кругозоре.

Знакомые выпускники посольской школы массово поступали на бюджет в лучшие москов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и это добавляло дочери учебного энтузиазма.

Мы опасались, что девочка забудет английский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ежедневного англоязычного общения. Однако она не просто сохранила, но и улучшила его при помощи занятий по скайпу с носителем языка. Её мексиканские учительницы и корейские одноклассницы говорили гораздо хуже.

Поначалу я волновалась, сможет ли ребенок, привыкший к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манерам западной школы, со всеми этими учительскими улыбочками («дай пять!», «давай обнимемся!») и постоянному одобрению,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внешней сдержанности и открытой субординации русской школы, где учитель стоит выше ученика и двоечник не равен отличнику. Оказалось, что проблемы просто нет. Дочь понимала неформальную субординацию западной среды гораздо лучше нас, принимала её как данность, и субординация русского образца совершенно не оскорбляла её достоинства. Она легко встроилась в этот новый для неё мир и приняла его правила.

(Продолжение в следующем номере)

ТАТЬЯНА ГАБРУСЕНКО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Южная Коре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авящую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возглавил Ли Нак Ён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Ли Нак Ён избра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съезд партии проводился 29 августа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режиме. За Ли Нак Ён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депута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и потенциальным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страны, отдано 60,77% голосов делегатов съезда. Его соперниками в борьбе за пост лидер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были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етырёх созывов Ким Бу Гём и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к Чу Мин. Обращаясь к делегатам, новый лидер партии поблагодарил их за оказанное доверие,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вступает на новый пост «с чувством больш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н назвал пандемию COVID-19 и сопутствующие ей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как самые неотложные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ейчас сталкивается партия.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на основе широкого участия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я буду работать над тем, чтобы помочь стране быстрее преодоле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кризис», - подчеркнул Ли Нак Ён. Съезд также избрал Высший совет партии в составе пяти человек: Ким Чжон Мин, Ём Тхэ Ён, Но Ун Рэ, Син Дон Гын и Ян Хян Чж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назначен Вон Ин Чхоль

Генерал Вон Ин Чхоль,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зглавляет штаб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назначе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официальное утверждение в должности последует за одобрением кандидатуры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и кабинетом министров. Вон Ин Чхоль сменит генерала Пак Хан Ги,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ляет Объединённый комитет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с октября 2018 года. Официальный срок нахождения в данной должности не установлен, 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ложившейся практикой, он составляет от полутора до двух лет. Вон Ин Чхоль 59 лет. Он окончил Академию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в 1984 году, занимал различные командные долж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был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и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ВВС по оперативным вопросам.

Пандемия COVID-19 окажет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рынок труд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андемия COVID-19 окажет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рынок труда в тече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времен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аналитическом отчёт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понедельник Банком Кореи. В марте и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спрос на рабочую силу снизился, поскольку компании сократили набор персонал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кратилось предложение рабочей силы, поскольку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искателей отказались от поиска работы и стали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активными,- отмечается в отчёте. По дан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нятость сокращается пять месяцев подряд.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число занятых сократится на 13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30 тыс.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Банк Кореи прогнозировал в мае.

Заражение COVID-19 признано несчастным случаем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Заражение вирусом COVID-19 сотрудника одной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за границей признано несчастным случаем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Заболевший, который работал в США, получил положенное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пособие от Корпор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бочих. Случай заражения COVID-19 за рубежом впервые признан в РК несчастным случаем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Между тем, если работнику причинён ущерб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им сво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за границей, он имеет право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76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COVID-19 врачей, медсестёр и санитаров признаны несчастными случаями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Заболевшие в процессе выполнения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имеют право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представив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Участники BTS представили новую песню

Бой-бэнд BTS (방탄소년단) 21 августа представил песню Dynamite, ставшую первым синглом группы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музыкальная новинка заняла первые строчки чарта iTunes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х песен в 104 странах мира. Песня Dynamite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яркую и весёлую композицию в жанре диско-поп; она призвана зарядить энергией всех слушателей, изрядно уставших от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олее полугода, - сообщили артисты во время онлайн-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21 августа. Участники BTS также отметили, что работа над новой песней доставила им невероят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Это придало нам сил,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песня зарядит энергией всех тех, кто её услышит", - добавили он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фициальный видеоклип к песне доступен на видеохостинге YouTube. Его посмотрели уже 140 млн пользователей.

(RKI)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ия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32, 33, 34)

Как уже писалось, 2-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дислоцировался в районе Хабаровска и наносил удары по японским войскам с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В составе фронт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генерала армии М.А. Пуркаева (в честь него названа одна из улиц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евали 2-я, 15-я, 16-я армии, 10-я воздушная армия, Приамурская армия ПВО и 5-й отдельный стрелковый корпус. В 16-й армии состоял 56-й стрелковый корпус, часть которого – в основном 79-я стрелковая дивизия и 2-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осуществля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наступательную операцию. Наступление велось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го Сахалина (от 50-й параллели). Единственная дорога, связывающая Северный и Южный Сахалин, шла вдоль вытянутой с севера на юг (между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им и Западно-Сахалинским хребтами) долине реки Поронай. Именно на этой дороге японцы соорудили Котонский укрепрайон, который упирался левым флангом в Поронайскую цепь, а правым – в заболоченный берег Пороная. Битва за Котон – эта основная би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перации, длилась она с 11 часов утра 11 августа и продолжалась двое суток. Овладев Котонским укрепрайоном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встречая сопротивления двинулись к столице Карафуто городу Тоёха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взяли его 25 августа. 22 августа в Сиритори (Макаров) советское и японское командование подписали Сиритор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екращени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цев и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Северн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военная флотилия (из состав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высадили десанты в порты Торо (Шахтерск) 16 августа, в Эсутору (Углегорск) – 17 августа, Маока (Холмск) – 20 августа, Хонто (Невельск) – 24 августа (этот же десант выдвинулся из Хонто в Одомари (Корсаков) и взял его в ночь на 25 авгус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к 25 августа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или боевую задачу и взяли Южный Сахалин под контроль.

Как раз к этом числам относится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в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во время



Рисунок 1. Карта Советских операц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18 августа в районе г. Поронайска (Леонидово – Камисисука) и 21 августа в райо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жарское – Мидзухо), до приход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в эти районы,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 настроенные японцы совершили зверские убийства корейского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включая женщин и детей.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освобождались во время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она силами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контр-адмирала И. Юмашева с 17 августа по 4 сентября. Десант высаживался на северны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Шумшу, Парамушир и Онекотан. На Шумшу шли самые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которые удалось завершить к 21 августа. После этого японцы прекратили сопротивление и советским войскам уже оставалось только принимать капитуляцию японских военных контингентов на остальных островах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люченными с союзниками по антигитлеровской коалиции соглашениями,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осуществил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 Японии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Маньчжу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что привело в итоге к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японцев завершилось и начиналась мирная жизнь, заложившая основные контуры нашег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к.и.н.

Ученые, военные, дипломаты говорят об урока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на Сахалине

Треть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Урок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тартов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 2 по 4 сентября ученые, военные, диплома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из Росс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Японии, Кореи, Казахстана, Вьетнама будут говорить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и перестройк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подвигах солдат, репатриации насел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движении сахалинцев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многом другом. Заявлено более 50 докладов, их авторы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олее чем 30 учрежден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Многи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дистанционно.

— Этот год для нас юбилейный, мы проводим очень много мероприятий и одним из знаковых является наша конференция, — обратила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 Да, она проходит в другом формате, отличном от тех форматов, к которым мы привыкли. Но я более чем уверена, что все ваши выступления, все ваши доклады будут яркими и интересными. Мы проводим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и ваши исследования — это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борьбу с любой попыткой фальсифицировать нашу историю.

К собравшимся обратился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та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особенно в этом году, когда она приурочена к 75-летию со дня подписания Японией акта о безоговорочной капитуляции. Сахалин выбран местом для разговора о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прозвучали последние залп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Это было так давно, но сколько бы лет ни прошло, забывая об этом нельзя,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обсуждают расхождения в оценке тех или и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и отмечают,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неискаже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героическое прошлое нашей страны. Кроме обозначения этой ключевой мысли конференция — еще и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редкие факты. Где еще в одном зале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доклады, посвященные религии и верующи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системе ГУЛАГа, почитать письма с фронта, узнать об эхе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о последнем управляющем трестом "Сахалиннефть" в годы войны, о боевом пути обычного военн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о том, как владивостокская таможня перестраивала работу на военный лад...

По итогам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ет принята резолюция, где в числе прочего решено обратиться к министерства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тран АТР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 провед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ИА САХКОМ)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тся Дом молодежи

Он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ой арт-резиденцию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идей 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28 августа проект представили члены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первом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ом молодежи — это не стены, это люди, объединенные общими интересами. Это понимание у нас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о, и мы начинае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 Стоит задача, чтобы отобрать лучшие проекты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прежде всего,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У нас есть подходящее здание. Надо применить архитектурные решения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пространства, чтобы молодым людям было комфортно,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14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проект творче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Сахалинская арт-резиденция получила рабочее название «Маяк». Это место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объединения для молодых людей, желающих представить и реализ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идеи.

—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в регионах — это главный инструмент для вовлечения молодежи в культурную среду и пересмотр подхода к её развитию. Мы ставим целью на 2021 год организовать не менее 20 новых, уникальных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Всё это должно сделать регион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в том числе в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лане,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митрий Сماعيلов.

Отметим, сейчас в составе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фициально утверждены 5 человек. Кроме председателя, его представляют лидер команды «Образование» Яна Коротаева. Она является старши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ГУ. Лидер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а» Елена Красильникова,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афедры хирургии и реанимат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Направление «Туризм» возглавляет Евгений Рогаль,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IT индустрию и новации» в молодеж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едставляе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Андрей Зонов. Сегодн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всем удостоверения.

Подбор кандидатов в молодеж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 2020-2022 годы еще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продолжается.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ах медицины, спорт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следующих созывов могут быть изменены в связи с новыми потребностями молодежи.

38 сахалинцев представя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финале WorldSkills Russia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VII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в дистанционно-очном формате с 6 по 21 сентября.

Поздравить ребят-финалистов и вручить им форму островной сборной приех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Чемпионат WorldSkills Russia — не только смотр лучш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ил, но и платформа для создания луч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движению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 2016 году. За это время в области уже прошли пять рег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ов, победител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олуфиналах и финал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ов, завоева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и пожелал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победы.

Глава островной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сказала, что для многих чемпионат профмастерства становится трамплином в успешное будущее.

— Благодаря движению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истема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Желаю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ервенства воли к победе, уверенности в своих силах, собранности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и. Мы знаем, что у вас все получится, — обратилась к ребятам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тбор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еред выходом в финал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роходили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с 1 по 20 августа. На Сахалине ребята состязались по 13 компетенциям.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островной сборной к финалу для 80 участн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провели выездной интенсив на базе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с 29 по 31 августа.

—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насыщена мероприятиями развивающего и твор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упражнениями на командообразование. Все эти знания пригодятся членам островной сборно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мотивации, концентрации внимания и преодоления стрессовых ситуаций, — счит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вижения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ната Райнбагина.

В этом году,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финал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ервенства станет самым масштабным за все 8 лет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по 7 блокам професс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троитель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и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творчество и дизайн; производство и инженер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фера услуг; транспорт и логистика; образование. Всего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более 170 компетенций.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ведут поэтапно в формате онлайн-марафона по итогам заверш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кажд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Отметим, что финал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Russia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роводятс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тандартам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средн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возрасте от 16 до 22 лет. Они способствую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молодежи и внедрению в систему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лучш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актик.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форум «ОстроVa-2020»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прибыли молодые люди со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 1000 человек. На Сахалине они обсудят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 том числе из сферы политики, экономики, истории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слёта подготовят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воих регионов.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к участникам обратились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ектам Сергей Новиков,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Ф Елена Дружинин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Григорий Гур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Ольга Амелеченкова.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б исторической знач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и пожелал всем его участникам удачи.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собравшихся 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области. Эти данные пригодятся юношам и девушкам в работе над проектами.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ют более 200 программ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молодежи. Например,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студенческие семьи получают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 57,5 тысячи рублей. А затем ежемесячно — по 17 тысяч. Также выплачива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На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 это 150 тысяч, а на второго —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малыши которых не посещают детский сад, с 1 сентября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ежемесячно до 16 тысяч рубле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регионе уделяется развитию спорта — гостей принимает современный курорт «Горный воздух». Он является настоящим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молодежи. Там проходи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и досуг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молодежи также важна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Сахалин в этом плане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примером — в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музыкальные и театра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кинофестива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Так,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завершился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 Уже в 2020 году откроем «IT-Park». На его базе будут созданы: «Точка кипения»,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акселератор. Они помогут молод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на всех этапах — от идеи д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ного делается для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мы запустили программу «Двух дипломов»,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туденты СахГУ смогут параллельно получ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в ведущих вузах страны. Также мы поставили цель — в 2024 году прове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чемпионат Ворлдскиллз Азия. Он станет серьез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наших ребят и развития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целом.

О том, в ка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следует развиваться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также предложат рассказать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У многих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ы идеи и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 Я считаю, что будущее зависит от молодых людей.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нам предстоит его строить. Лично меня интересует спорт. Я хочу, чтобы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о больше площадок для уличных дисциплин — воркаута, скейтбординга и BMX. У нас очень много спортсменов, но им негде заниматься. Нужно это изменить. Я планирую подгото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роект и подать его на грант, — рассказала Екатерина Юханова из Корсакова.

— Мне интересно, каким образом будет дальше проектироватьс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ак это повлияет на жизнь людей.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важна для меня, поскольку я учусь на социолога,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Владивостока Екатерина Богумирская.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 стал уникаль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бы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его историей и природой.

—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организация слёта. Остров оказался очень гостеприимным и зеленым. Здесь очень теплая атмосфера. Уверена, это поможет в нашей общей работе. Хочу уехать с актуальными зна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медиа и с умением грамотно подготавливать свои материалы, — отметила Мила Вельниковская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 Хочу создать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вашему

региону развиваться и привлекать туристов. Уже нашла себе новых друзей. Вчера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рождения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 купили торт. Экскурсии очень хорошие. Например, побывал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делали фото. Сахалин — очень необычное место. Складывается впечатление, будто приехала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Краснодара Татьяна Колесникова.

По итогам работы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ят пакет проектных инициати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к участию в решении задач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Все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н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слёт «ОстроVa-2020», посвященный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продлится до 4 сентябр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ют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На Сахалине выберут «Человека года-2020»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1 по 15 сентября. Номинацию учред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масштабного ежег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Номинация «Человек года» призвана рассказать о сахалинцах и курильчанах, в жизни которых есть место подвигу.

— Спасатели разных категорий, врачи, учителя — все они осуществляют персона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 ее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процветание. Их знания, уважение к истори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его будущем являются тем двигателем, который формирует успех и сил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еловек года 2020» — это конкурс признания заслуг и достижений. В целом он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асколько высок уровень вовлечен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и в реш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 Уникальность номинации «Человек года 2020» в том, что именно под эгидой прем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яет людей разных поколений и профессий.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е просто занимаются любимым делом, а достигли в этом деле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которые важно показать все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бласти Юлия Рокотьянская.

В рамках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предусмотрено 28 номинаций, которые охватывают 62 подноминации. В них определяют 126 лауреат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а премию подано около 700 заявок.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оитс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 4 ноября 2020 года.

Пятер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шли в суперфинал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6 и 7 сентября в подмосковном Солнечногорске пройдет суперфинал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2020» — флагманского проекта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иглашения в суперфинал по итогам региональных полуфиналов получили 270 участников. По итогам полуфиналов специализац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Наука» и «Финансы и технологии» — пригласили еще по 10 человек от каждого трека. Всего из 233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третьего сезона в суперфинал вышли 300 конкурсантов из 54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а также из Украины и Белоруссии.

Конкурсантам предстои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лидерские качества и побороться в очных оцен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а которых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100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екта.

Из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 суперфинал пробился 31 конкурсант. Среди них — пятеро представляют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Это инженер-электрик 1 категор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Инвестмент Компани ЛТД»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директоров АО «Звезда Редуктор» Вячеслав Бамбуров,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по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колай Батулин, а такж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з Малокурильского Ильяс Калмыков и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юридического отдела ОП «Энергосбыт» филиала ПАО «ДЭК» «Сахалинэнергосбыт» Алексей Шнайдер.

За три сезона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урса назначение на высокие должности получили около 200 «лидеров России». Цели проекта — выявление, развитие и поддержка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бладающих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лидерских качеств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омпетенци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артнерами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ают крупнейш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мпании — РЖД, Сбербанк, Газпром, Ростелеком, Росатом, Роснефть, Русгидро, Сибур, Роскосмос, НЛМК, а также Телевизионная сеть RT, РАНХиГС, Альпина Паблишер, ЛитРес и генераль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партнер — Mail.ru Group. Привлечение партнеров направлено на адресную поддержку финалист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엔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родилось 2645 человек

За январь — июн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2645 родившихся и 2945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00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9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398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урильском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291 брак и 962 развода против 1423 браков и 1384 разводов в 2019 год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로시스카야산 등반에 사할린 주민들 초청

9월 6일, 전 도시적 로시스카야산 등반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조성 된다.

전통적으로 6월 12일 러시아의 날 기념으로 진행되던 이 행사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 주 관광청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참가자 등록과 등반 안내는 출발 지점인 '고르니 워즈두흐' 종합스포츠단지 상부 승강장에서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시간에 무료로 케이블카를 운행한다고 한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탐방로를 표시하고 등산로를 따라 길을 안내할 '아드레날린'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분산배치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동은 성인 보호자와 동반 필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반려견

동반 시 개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케이블카 탑승 시 참가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간식과 보온병, 계절과 등산에 적합한 복장을 갖춰야 하고 알코올을 가지고 가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산하는 길에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한다.

이 행사는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 단지과 주 관광청의 지원으로 '아드레날린' 사회단체가 조직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в поход на гору Российскую

Общегородское восхождение на гору Российскую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6 сентября. Из-за пандемии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еренесено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даты — 12 июня, посвященной Дню России.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област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туризму,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и инструктаж пройдет на месте старта — верхней площадк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09:00 до 11:00. В это время подъемы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Для удоб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тропу промаркируют, а по всему маршруту рассредоточатся волонтеры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дреналин», которые будут указывать дорогу.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дети допускаются только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взрослых). Собак на маршрут можно брать в намордниках или на поводке.

С собой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маску для подъема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перекус на день, термос, одежду,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восхождению и по сезону. На обратном пути участникам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 горячий чай. Алкоголь проносить с собой запрещено.

Организует восхождение «Адреналин»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и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사할린주,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Женщина 68 лет, проживающая в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накомится с мужчиной 1944-1945 г.р. и старше, для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ел: 89242804045.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68세의 동포 여성이 영주 귀국을 위해 1944-1945년생, 또는 그 이전 출생의 남성과 만남을 원함.

전화 89242804045.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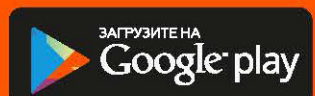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